

하타오리마치 - 직물 마을

후지요시다는 1,000 년이 넘는 직물 생산의 중심지로 현재는 하타오리마치(직물 공예가 번성한 마을)라고 불리며 그 전통을 살린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세기에 편찬된 법률과 행사에 관련된 규정을 기재한 엔기시키(延喜式)에는 이 지역의 기후와 고도로 인해 일반적으로 연공으로 바쳐야 했던 쌀을 생산하기 어려워서 세금을 명주로 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변영

에도 시대(1603~1868)는 수세기 동안 계속된 전쟁 끝에 찾아온 평화의 시대로 수도인 에도(현재의 도쿄)에서는 상인이나 장인으로 이루어진 부유한 중산계급이 대두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복장 등으로 사치를 누리며 그 부를 경쟁했지만 17 세기 중반에 사치를 금지하는 법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류의 색은 갈색이나 회색과 같은 수수한 색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안감까지는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갈 길을 찾은 에도 사람들에 의해 컬러풀하면서도 우아한 안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후지요시다에서는 염색사가 후지산의 깨끗한 샘물을 사용해 선명한 색으로 염색한 명주가 특히 귀하게 여겨지며 직물 산업이 번성했습니다.

후지요시다는 에도 시대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섬유 제품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1950 년대부터 1970 년대에 걸친 기적의 경제성장은 그 수요를 전에 없이 밀어 올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직기를 드르륵(**가차**)하기만 해도 **만엔**을 번다는 ‘가차만 경기’라는 재미있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브랜드의 발신지

질 좋은 원재료의 공급원이었던 후지요시다는 소비자용 브랜드의 발신지로 그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수많은 직물 제조 회사가 개최하는 ‘오픈 팩토리’에서는 직기를 사용해 직물을 제조하는 모습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와 학생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북 커버부터 침구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특산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후지요시다시는 2016 년에 제 1 회 **하타오리마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금은 매년 가을마다 개최하게 된 이 이벤트에서는 전시, 음악 연주, 특별 게스트를 초대한 패널 토론 등 장인들과 상인들이 협력해 후지요시다의 직물을 프로모션합니다. 메인 이벤트장은 오후로센겐 신사와 혼초 거리로 후지요시다 시내 곳곳의 공장과 매장이 이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